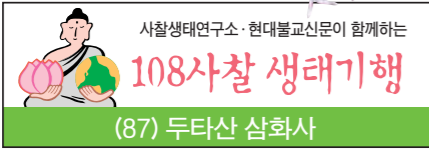


맑은 물 따라 버들개 노닐고 숲길엔 가을꽃 활짝



우리 산 이름 가운데 출가 수행자의 본분에 가장 어울리는 산 이름을 든다면 강원도 동해 '두타산(禪陀山)'일 것이다. '두타(禪陀)'는 범어인 'dhuta'를 음역한 것으로, '의식주에 탐착하지 않고 수행하여 번뇌에서 벗어남 또는 그러한 수행자'를 이르는 말이다. 강원도 동해와 삼척 지역은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지역이다. 두타산(1353m)을 비롯해 이웃한 청옥산(1403m), 고적대(1353m), 갈기봉(1260m) 등이 아고산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산을 좋아하는 이들이 이 고산지대의 능선을 옷걸이 했대에 비유하여 '의가등(衣袂繩)'이라고 불렀다. 현재의 두타산과 청옥산은 이름이 바뀌어 있다. 고산자의 <대동여지도>를 비롯하여 많은 자료들이 고증하고 있다. 청옥산이라는 이름은 조선 후기에 처음 등장하는 것을 보아 원래 두타산이 지금의 청옥산이었음이 분명하다.



구름버섯.



새머느리밭꽃.



산천어.

두타산과 청옥산이 만드는 명승 무릉계곡에 신라 고찰 삼화사(三和寺)가 자리하고 있다. <삼화사사적비>와 <진주지> 등에는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초창한 것으로 나와 있고, <동국여지승람>과 <최주지> 등에는 신라말 굴산산문의 개산자인 범일국사가 창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삼화사의 원래 절터는 동쪽으로 1.3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러다가 1977년에 쌍용양회가 들어와 석회석을 채광하면서 자의반타의반으로 현재의 자리로 옮겼다. 하루 2차례 진행되는 발파작업으로 삼화사는 전각에 금이 가는 피해를 입고 있다.

삼화사 공용주차장에 내리면 매표소를 지나 절까지 숲길이 이어져 있다. 숲길 오른쪽으로는 한계반에 수 백명이 앉을 수 있는 너른 임반(무릉반석)이 있고, 그 위로 옥 같은 물이 흐른다. 반석 한 칸에 아름다운 금란정(金蘭亭)이 서 있다. 무릉계곡의 물은 폭우나 태풍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1급수를 보여주고 있다. 서식하는 물고기들도 버들개와 산천어 등 1급수 어종들이다.

산천어는 수온이 섭씨 10도 안팎의 차가운 물에서 사는 1차 담수어이다. 크기는 어른 한 정도이며, 몸의 옆면에는 10개 내외의 큰 가로늑이 있고, 그 아래쪽에 작은 점들이 뿔뿔하게 흩어져 있다. 산천어는 동해로 유입되는 하천에만 서식한다. 수서곤충, 어린 물고기, 동물성 플랑크톤, 다른 어류의 알 등을 먹고 자란다.

바위 위에서 깃털을 고르는 물까마귀는 텃새로, 몸 전체가 진한 흑갈색이다. 산간의 맑은 계류에서 혼자 또는 부부 둘이서만 산다.

삼화사 주변의 텃새로는 박새류와 딱따구리류를 비롯하여 직박구리, 굴뚝새, 딱새, 동고비, 붉은머리오목눈이, 멧비둘기, 어치, 까치, 큰부리까마귀 등이 관찰되었다. 물가 주변에서는 검은맹기해오라기, 물까마귀, 원앙, 청호반새, 물총새, 노랑할미새 등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피꼬리, 파랑새, 후투티, 쇠우리새, 흰배지빠귀, 삵꾸기 등 여름철새는 이미 남쪽으로 떠나고 보이지 않았다.

반석교 다리를 건너면 삼화사가 나온다. 옛 터에서 이전해온 지 겨우 30년, 마당 가운데 자리한 석탑 말고는 천년고찰을 느끼기가 어렵다. 가람배치는 남향한 적광전(寂光殿)을 중심으로 좌우에 전각들이 위치하고, 마당 앞에 석탑이 서 있다. 적광전 앞 석탑은 석회석 성분이 많은 이 지역의 석재로 쌓은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오랜 세월 비바람으로 인해 훼손된 부분이 많다.

문덕에 이승휴(李承休) 유자비와 탑이 서 있다. 그는 <제왕운기>를 통해 단군이 박달나무 신의 자식이라 하여 나무를 우리 겨레의 시조신으로 상징하고 있다.

경내 조경수로는 박태기, 무궁화, 주목, 공작단풍, 복숭아나무 등이 있지만, 주위의 수승한 자연풍광에 놀려 눈에 잘 띄지도 않는다. 다만, 지장보살상 위에 가지가 들로 뻗은 노송이 한 그루 있고, 천왕문 좌우에 늙은 향나무가 한 그루씩 서 있는데, 그 중 한 그루는 밑에서부터 세 줄기가 뻗어 나와 불발승 삼보를 빚대어 '삼보향(三寶香)'이라고 지어 보았다.



팬나무

무릉계곡 주변에 산천어 등 1급수 어종·다양한 양서류 서식 관음암 가는 길엔 우리나라 특산물인 금강초롱 관찰할 수도

담장 밖 연못에 연꽃, 수련, 개연 등을 띄웠는데, 꽃은 이미 지고 없다. 그 대신 구절초가 연못 물결에 화려하게 피었다. 물속에 호박씨만하게 자란 붕어들이 노닐고 있다.

활엽수를 좋아하는 대형 딱정벌레들은 야행성이 많다. 사슴벌레들은 여름 한철을 보내고 이제 서서히 동면을 준비할 때이다. 넓적사슴벌레는 우리나라 사슴벌레 가운데 몸집이 가장 크고 힘도 가장 세다. 몸길이는 7cm까지 자라는데, 머리는 짧고 바깥쪽 테두리는 거의 직선형이다. 빨은 직선형으로 뻗었다가 끝이 갑자기 오므라들어 있다. 나무진이나 과일에 잘 모이고, 야행성이지만, 불이 켜진 산중암자나 가로등 밑에 잘 날아다닌다.

굵은줄제비가지나방은 자나방의 한 종류로 남한 전역에 분포하지만, 흔하지는 않다. 여름철에 나타났다가 가을이면 사라진다. 몸과 날개는 모두 백색이다. 더듬이 모양은 수컷은 깃털 모양, 암컷은 실 모양이다.

삼화사와 무릉계곡 주변에는 도롱뇽, 무당개구리, 물두꺼비, 청개구리, 참개구리, 아무르산개구리, 산개구리 등 여러 종류의 양서류들이 서식하고 있다. 는개구리라고도 불리는 참개구리는 주로 초지에서 관찰된다. 주위환경에 따라 보호색을 띄는데, 여름에는 초목색 바탕에 노란색 얼룩무늬, 가을에는 낙엽 색깔과 같은 회갈색으로 바뀐다.

비가 내린 다음이라 경내에서 여러 종류의 버섯들이 관찰되었다. 나무 그루터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윤지버섯은 독성은 없지만, 조식이 가축처럼 질겨서 식용하지 않는다. 항암효과가 있어서 새로운 관심을 끌고 있다.

삼화사 절 뒤로 경사진 산비탈에 금강송들이 울창성장한다. 그러나 얼마 전 삼화사 주변에 재선충이 들어와 지금 총 비상상태에 걸려있다. 산림청은 삼화사 요사채 증축공사를 벌일 때 사용한 소나무 목재에 있던 솔수염하늘소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소나무 반출을 금지시키고, 항공방제를 실시했다.

삼화사에서 옹주까지 2km는 길도 넓고 경사가 느리다. 상록수로는 소나무와 전나무가 나타나고, 지질(석회암)의 영향을 받아 회양목과 노간주 같은 상록수도 보인다. 대표적인 활엽수로는 참나무 종류를 비롯하여 황백나무, 물박달나무, 거제수나무, 느릅나무, 다릅나무, 들메나무, 마가목, 서어나무, 소태나무, 음나무, 팽나무 등이 관찰되었다. 그 밖에 등짐도 계곡 주변에서 목격되었다.

황백나무는 높이 10~15m 가량으로 자란다. 줄기는 연회색의 코르크가 발달하고, 잎은 달걀 또는 피침형이며, 잎에 윤기가 있다. 가을에 열매가 검게 익는다. 줄기의 노란 속껍질은 섬유와 이질을 낚게 하는 한약재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무를 잘라 잘라 가기도 한다.

물박달나무는 자자나무과의 교목으로, 높이 20m에 지름이 30cm 정도에 이른다. 줄기는 회갈색의 얇은 종이를 터덕터덕 붙여 놓은 것처럼 지저분하다. 잎은 마주나고, 불규칙한 톱니가 있으며, 6~8쌍의 측맥이 뚜렷하다. 내한성이 있어서 주로 중부이북에 자란다.

숲길 오른쪽으로 학소대가 허공중에 아슬아슬하게 자리하고 있다. 붉은색이 감도는 바위들이 마치 두 부부처럼 각이 져서 증암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증암은 절리현상에서 비롯된다. 외부의 힘에 의해 암석에 생긴 절리에는 가로로 갈라지는 판상절리와 세로로 갈라지는 주상절리가 있는데, 학소대의 절리는 퇴적암에서 볼 수 있는 판상절리가 대부분이다.

무릉계곡의 비경인 옹주폭포는 3단으로 쏟아진다. 폭포 아래는 향아리처럼 생긴 폭포(瀑瀾)가 있는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물이 바위를 절구통처럼 파낸 것이다.

관음암으로 가는 숲길, 그늘을 비껴서 가을꽃이 피었다. 금강초롱은 중북부 높은 산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나라 특산물이다. 60cm 안팎의 줄기에 4~5장의 잎이 어긋나고, 가을에 종처럼 생긴 꽃이 곧추 선 줄기 끝에 핀다. 꽃은 남보라색으로 1송이씩 피는데, 땅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두타산은 금강초롱의 남방한계선으로 알려져 있다.

삼주는 국화과 초본으로 키가 50cm 안팎이다. 잎 가장자리에 짧은 가시처럼 생긴 톱니들이 있다. 꽃은 가을에 피는데, 연분홍색이다. 봄날 흰 솜털로 덮인 어린 순은 나물로 먹는다. 가을에 뿌리를 캐서 말린 것을 백출(白朮) 또는 장출(倉朮)이라 하여 한약재로 많이 쓰인다.

이 밖에 삼화사와 관음암 주변의 귀화식물로는 미국가막살이, 흰삼당골, 개망초, 땅초, 미국속부쟁이, 달맞이꽃, 다락냉이, 붉은토끼풀, 돼지풀, 서양민들레, 오리새 등이 있다.

관음암은 요즘 침출석탑 건립공사로 분주하다. 관음암 앞의 팬나무는 여러 그루가 한데 모여 특이한 수형을 연출해내고 있다. 계속 건너 펼쳐지는 암벽단애가 거대한 성벽처럼 다가온다. 관음암은 안대가 일품이다. 글·사진=김재철(사찰생태연구소장) daum.net/templeeco

화두참구의 길잡이! 간화선의 필독서! 《벽암록》! 선어록의 최고봉

번역기간 9년! 출판기간 3년! 12년 만에 출판된 벽암록 완역본! 한국 禪宗史上 최초의 완역본!

“국내최초의 完譯版!”

석지현 역주 해설본 《벽암록》의 특징!

- ① 국내 최초 《벽암록》 완역 해설본!
- ② 수시·본적·착어·평장·송·송착어·송경장을 모두 번역하고 해설한 책!
- ③ 벽암록 권문(卷文)의 원문 수록과 인도 작업 완료!
- ④ 벽암록 네 개의 이본(異本) 대조!
- ⑤ 벽암록 100칙 공간 하나하나마다 활구(活句, 절구할 부분)와 사구(死句, 이해할 부분을 일일이 구분하여 제시한 책!)
- ⑥ 장강 9년에 걸친 여주 작업, 출판기간 3년!
- ⑦ 벽암록 속어 낱말사전 완성!

전5권 완역

전5권 값 120,000원 · 각권 500쪽 신국판 양장

민중사 서울시 호로구 수송동 58번지 우산원외차별터로 1131호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3-7565) 이메일: minjoksa@cho.com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인도사 108 장면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도의 문화를 모르고는 불가능합니다.

불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인도를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읽어야 할 책. 아주 쉽게 인도불교 역사를 이해할만한 책이 없을까?

지은이 박금표 4·8배판 변형 480쪽 값 15,500원

정말 멋져 누가?

- 1 동화 쓰는 엄마와 민화 그리는 아빠가 함께 단돈 책
- 2 초등학교인 디헝이에게 엄마가 들려 주는 부처님 이야기
- 3 아직도 아이들은 부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우리와 같은 세상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고 세상을 살다가 흩어가셨다는 사실에서 이 책을 출발하고 있다. 신경화된 부처님에 아니라 우리처럼 먹고 자고 말하고 행복을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부처님

글 박신영 · 그림 강명호 4·8배판 152쪽 양장본 값 9,900원